



# 우주, 당신을 기다립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400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태양과 달, 목성과 은하수를 일반 시민들이 천체망원경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한 달 동안 펼쳐진 이벤트들을 살펴보고, 11월에는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엿보기로 하자.

## Sci-Art 전시

지난 9월 30일부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우주 직접 만들기 (DIY Universe)”라는 주제로 설치미술과 조소, 회화, 미디어아트 형태로 ‘우주’를 재구성한 새로운 개념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전시에는 최태훈, 변지훈, 베른트 할프헤어(Bernd Halbherr) 등 18명의 국내외 설치미술 작가와 미디어아티스트들이 출품했으며, 카이스트 교수와 학생들의 협업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한국과학기술원 원광연 교수(문화기술대학원 원장)는 “우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에게 내재된 창의적인 사고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직접 만들기”는 11월 25일까지 열리며, 1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서울인사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관에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17세 미만의 천문학에 관심 있는 국가 대표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천문학 이론 시험, 관측 시험, 실무 시험을 치르는 대회로 올해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여 개국의 과학영재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 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

지난 9월 28일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천문학 강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09년 전반기에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한 결과 선생님과 학생들의 많은 호응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전국 7개 천문학과 대학교수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제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청소년수련



## 11월 2009세계 천문의 해 프로그램 알림

프로그램	개요	일정
Sci-Art 전시	지구와 행성, 별과 우주를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 형태로 재구성해 전시하는 행사	- 대전시립미술관 - 11월 1일(일)~25일(수)
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	천문학자가 중·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강연 프로그램	- 경기도, 대구, 대전, 청주 - 11월 1일(일)~27일(금)
전국 KTX역 "디지털 우주"	전국 주요 KTX 역에서 코레일과 함께하는 천체사진 순회 전시	- KTX 동대구역 - 11월 2일(월)~15일(일) - KTX 광주역 - 11월 16일(월)~30일(월)
제11차 한-이태리 상대론 천체물리학 심포지움	The Sun, the Stars, the Universe and General Relativity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902호 리셉션홀 - 11월 2일(월)~4일(토)
포항가족과학축제	우주로 떠나는 신나는 과학여행 체험 한마당	- 포항공과대학교 실내테니스장 일원 - 11월 6일(금)~8일(일)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극장식 과학강연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과학의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	- 울산 KBS - 11월 12일(목)~13일(금)
천문학, 책으로 말하다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천문학 책을 주제로 책 저자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프로그램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 11월 26일(목) - 연사 : 문종규